

PRESS KIT

renoma

23rd October 1963 – 23rd October 2013

50 YEARS OF DESIGNING

시사회 2013년 10월 22일

전시기간 2013년 10월 23일 - 2014년 1월 23일

www.renoma-paris.com

www.renoma.wordpress.com



The White House - 1963년의 레노마 매장.

보도자료

1963년 10월 23일, Paris, Rue de la pompe 거리에 white house라는 레노마 매장이 야심차게 문을 열렸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헌정적인 패션을 창조한 레노마는 파리 남성복 패션계에 혁명을 가져왔다.

미셸과 모리스 형제는 당시의 보수적이었던 패션코드를 거침없이 부수었다. 미국 군복을 모티브로 한 나팔 바지, 은색 메탈단추 네개를 단 더블 버튼 블레이저, 그리고 그린, 가넷레드, 퍼플 등의 벨벳 컬러 수트, 인테리어용 패브릭으로 몸에 그린 듯이 꼭 끼는 셔츠가 바로 그것이다.

레노마 스토어는 곧 장송 드 사이(Janson de Sailly : 파리에 위치한 명문 고등학교)의 어린 재학생부터 거리의 젊은이들, 예술가에서 정치계의 거물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독특하고 타협없는 패션의 장소**로 거듭났다.

그곳에서 당신은 어쩌면 달리, 피카소, 밥 딜런, 에릭 클랩튼, 존 레논, 앤디 워홀, 잭 뒤트롱, 세르쥬 갱스부르, 칼 라거펠트, 이브 생 로랑, 프랑소와즈 아디, 카트린 드뇌브, 브리짓 바르도, 진 세버그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

1970년, 레노마는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레노마는 그 영역을 패션에서 펼쳤던 그의 열정에 창의성을 더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레노마 카페 갤러리와 사진전이다. 버킨, 갱스부르와 함께 시작했던 그의 광고 캠페인은 제임스 딘, 지미 헨드릭스, 롤링스톤즈 혹은 비트 세대(1950년대 2차 대전 이후 대두된 반체제적, 보헤미안적 문학가, 예술가 그룹)를 통해 **초월적 그래픽 디자인**으로 이어져 기묘하고도 표표한 세계관을 공감한다.

2013년 10월 23일, 신화적인 성공을 이룬 레노마 파리 매장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는 처음으로 사진작품과 함께 60년대를 화려하게 이끌었던 의상과 악세사리 등의 빈티지 컬렉션을 전시한다. 또한 레노마 스타일의 전설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작품집도 마르티네르 출판사를 통해 출간 될 예정이다.



129 bis rue de la Pompe
75116 Paris
Du mardi au samedi de 10h à 19h
www.renoma-paris.com

Press Contacts :
Margo Bourcier / Anne-Sophie
Rivière
01.44.05.38.18
presse@renoma-paris.com

**COPYRIGHT – FREE PHOTOGRAPHS,
EXCLUSIVELY FOR PROMOTING THE EXHIBITION.**



패밀리 스토어 앞에서 자신의 애마 TR3에 타고있는 레노마
22 rue Notre-Dame de Nazareth, 75003 Paris, 1961.



화이트 하우스 - 1963년 10월 23일, 레노마 매장 오픈 당일



모리스와 미셸 레노마
화이트 하우스 레노마 매장, 1963년 10월 23일

TIMELESS RENOMA



왼쪽 : 바자렐리 벨벳 자켓, 1968



Mini-skirt with a giant button, 1966.



오른쪽 위 : 큰 버튼을 단 미니 스커트, 1966

오른쪽 아래 : 더블 버튼 타탄체크 코트, 1966



(왼쪽부터)



첫번째 : 더블 버튼의 자켓과 기하학 모티프를 사용한 바지, 1970

두번째 : 원시림의 나무를 사용한 멀티 포켓 자켓, 1966

세번째 : 그물 모양의 주머니를 단 가방, 1976





왼쪽 : 풍경이 그려진 레더 자켓, 1964

오른쪽 위 : 페어아일 무늬의 캐시미어 점퍼, 1974

오른쪽 아래 : 격자무늬의 트위드 수트, 1974



Wood & cashmere Fair Isle jumper, 1974.



(왼쪽부터) 첫번째 : 더블 버튼 블레이저, 1971

두번째 : 레그오브머튼 소매의 벨벳 수트, 1964

세번째 : 스트라이프 블레이저, 1964.

